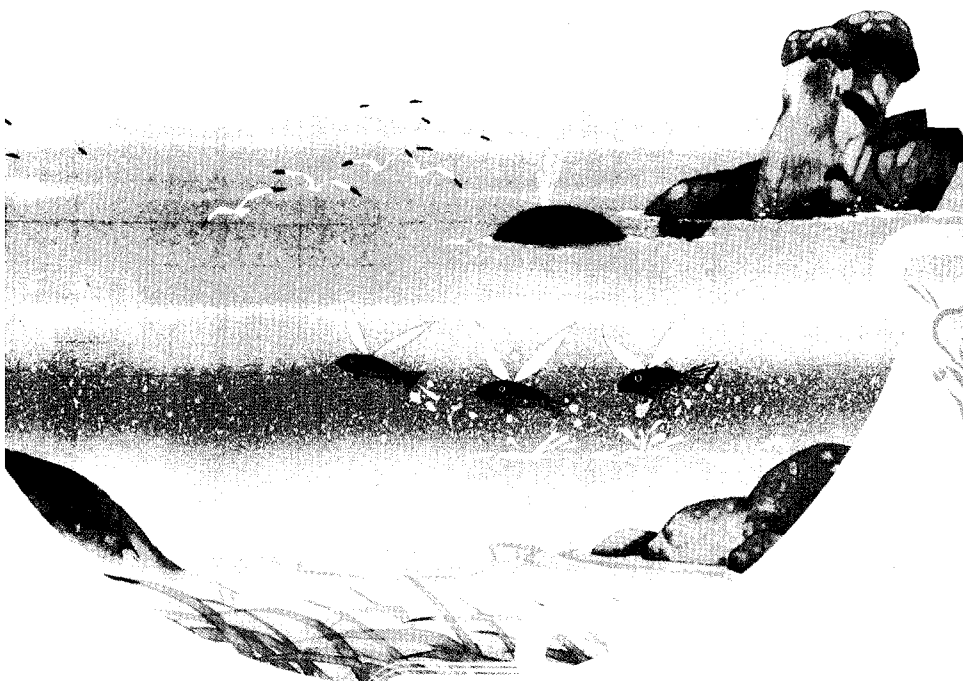




수업 |

협회, '녹색수산'의 길잡이가 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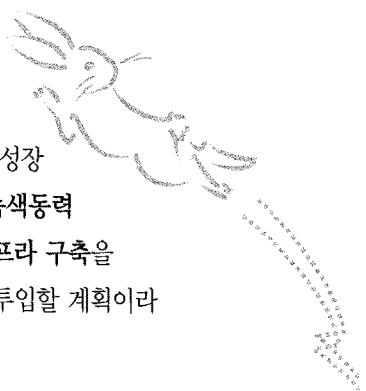
이성희 | 한국수산신문 편집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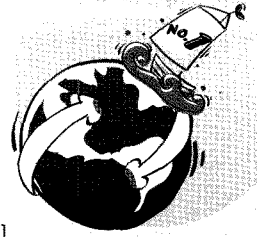


토끼해인 올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토끼는 다산(多産)과 장수(長壽)를 상징하며, 위난을 막기 위해 지혜롭게 3개의 굴을 만든다고 하여 '교토삼굴(狡兔三窟)'이라는 말도 있다. 또한 토끼는 내리막 길을 뛰기보다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더욱 유리한 신체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모두가 이같은 토끼의 지혜와 신체구조를 모델삼아 더욱 발전하는 신묘년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이제 우리 수산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체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한국 어촌어항협회도 올 한해 마치 토끼가 산의 오르막길을 점프하며 뛰어오르듯 힘차게 위로 비상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새해 협회의 비전과 경영목표는 이른바 '녹색'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바다의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일류 수산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어항의 녹색공간 조성 △어장의 녹색동력 확보 △바다의 녹색서비스 창출 △수산업 기반의 미래 역량 개발 △선진적인 경영인프라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3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제시된 비전과 핵심 전략만을 놓고 보면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척박한 수산 분야에 녹색 삶을 제공하는 단체로 서서히 탈바꿈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단체의 성격에 비춰볼 때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다소 추상적이랄 수 있는 이 같은 비전과 전략을 실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틀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단체의 성격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할 것이다.

사실 수산업의 기반시설(SOC)은 그동안 시행된 정부의 어촌종합개발정책 등으로 인해 상당 부분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어촌과 어항에 대한 개발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이는 수산 강국인 일본이 올해 수산예산에서 이 분야에 대한 사업비를 낮춰 잡고 있는 데서 충분히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협회는 이들 기반시설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시설만 번지르르하게 갖춰 놓았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바닷가에 들어선 구조물이 주변 환경이나 작업 여건을 바꾸는 데는 도움을 줄지 몰라도 그 자체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는 직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것을 토대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개발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협회의 극히 기본적인 임무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협회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함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데 보다 고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올 한해 협회는 수산분야가 아닌 외적으로 몰아닥칠 시련에도 당당하게 맞설 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산업계의 발전을 유도해 나갈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함께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각 사업분야마다 감히 어느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노하우를 갖추고, 실력을 배양하는 것만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녹색은 '색의 삼원색' 이자 '빛의 삼원색' 이기도 하다.

그만큼 우리 삶의 근원적인 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논한다. 부디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올 한해 수산분야의 근원이 될 녹색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단체로 굳건하게 자리잡아 나가길 기대해 본다. 